

윤리와 사상 정답

1	②	2	①	3	⑤	4	①	5	⑤
6	④	7	②	8	①	9	③	10	④
11	⑤	12	②	13	④	14	⑤	15	②
16	③	17	③	18	④	19	③	20	⑤

윤리와 사상 해설

- [출제의도] 장자가 강조한 삶의 태도 이해하기**
가상 대화의 '스승'은 장자이다. 장자는 선악, 미추, 귀천 등의 구분을 상대적이고 인위적인 것으로 보고 일체의 대립과 구별에서 벗어나 만물을 평등하게 대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心齋] 도(道)의 원리에 따라 사는 삶을 이상적인 삶으로 강조하였다.
- [출제의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 이해하기**
갑은 플라톤, 을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플라톤은 정의를 일종의 조화로운 상태로 보았다. 이때 개인 차원에서의 정의란 영혼의 세 부분인 이성, 기개, 욕구가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룬 상태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영혼을 이성적인 부분과 비이성적인 부분으로 나누고, 이에 따라 덕도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그는 덕과 악덕을 감정이 아닌 품성 상태라고 주장하면서, 중용의 태도를 보이는 품성 상태를 덕으로, 지나치거나 모자란 태도를 보이는 품성 상태를 악덕으로 보았다.
- [출제의도]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사상 이해하기**
갑은 자유주의 사상이 벌린, 을은 공화주의 사상이 비탈리이다. 벌린은 간섭의 부재를 의미하는 소극적 자유가 진정한 의미의 자유라고 주장하였다. 비탈리는 타인에게 자의적으로 지배되지 않는 상태를 진정한 자유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애국심을 공적인 삶에 대한 참여를 통해 키워지는 인위적인 감정으로 보았다.
- [출제의도] 흄과 칸트의 사상 이해하기**
갑은 흄, 을은 칸트이다. 흄은 도덕적 선악이 이성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느껴지는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도덕적 감정은 공감에 의해 보편성을 지닐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칸트는 이성이 도덕 법칙을 스스로 세울 뿐만 아니라 도덕 법칙을 따르도록 의지를 규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 [출제의도] 공자와 순자의 사상 이해하기**
갑은 공자, 을은 순자이다. 공자는 통치자가 먼저 덕을 갖추고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순자는 성인(聖人)이 제정한 예의와 법도에 따라 인간의 악한 본성을 교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공자와 달리 순자는 하늘[天]을 물리적인 자연 현상으로 보고, 하늘의 일과 인간의 일은 구분된다[天人之分]고 주장하였다.
- [출제의도] 밀과 듀이의 사상 이해하기**
갑은 밀, 을은 듀이이다. 밀은 쾌락에 양뿐만 아니라 질적인 차이도 있다고 보고, 감각적 쾌락보다 정신적 쾌락이 질적으로 높은 쾌락이라고 주장하였다. 듀이는 고정적이거나 절대적인 가치의 추구는 도덕적 성장이나 진보를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진리, 학문, 도덕 등을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 보았다.
- [출제의도]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 (가)의 갑은 아우구스티누스, 을은 아퀴

나스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이 신을 사랑하고 신의 은총을 받음으로써 내세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악을 실체가 아니라 선의 결핍 상태이자 신에게서 멀어진 상태라고 주장하였다. 아퀴나스는 신의 영원법이 인간의 자연적 성향에 반영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인간이 이성으로 파악한 자연법을 통해 자연적 성향을 인식하고 따름으로써 영원법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출제의도] 위정척사 사상과 동학 사상 이해하기**
갑은 위정척사 사상이 최익현, 을은 동학 사상이 최시형이다. 최익현은 올바른 것, 즉 유교적 가치 체계와 문물은 지키고 일체의 외세 문물은 배척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시형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하늘처럼 섬기듯 하여[事人如天] 누구나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출제의도] 정약용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은 정약용이다. 정약용은 사적을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천리로서의 성(性)이 아니라 사단을 확충함으로써 형성되는 덕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인간은 선이나 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주지권(自主之權)을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고 보았다.
- [출제의도] 맹자와 노자의 사상 이해하기**
갑은 맹자, 을은 노자이다. 맹자는 의로운 일을 실천하여[集義] 호연지기를 함양할 것을 주장하였다. 노자는 성인의 정치란 백성들을 무지(無知), 무욕(無欲)하게 하여 소박하게 살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현자(賢者)를 숭상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다투지 않게 된다고 보았다.
- [출제의도] 에피쿠로스학과 스토아학파의 사상 이해하기**
갑은 에피쿠로스, 을은 스토아학파의 에픽테토스이다. 에피쿠로스는 적극적인 욕구의 충족에 따른 쾌락이 아니라 몸에 고통이 없고 마음의 불안이 없는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자연적 욕구 중에서 필수적 욕구만을 최소한으로 충족할 것을 강조하였다. 에픽테토스는 신과 우주, 자연과 인간이 모두 이성을 통해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성의 법칙에 따라 존재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이성의 법칙에 따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출제의도] 사르트르와 키르케고르의 사상 이해하기**
갑은 사르트르, 을은 키르케고르이다. 사르트르는 인간의 본질을 정해 줄 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주체적인 선택을 통해 자신을 형성해 나아가야 한다고 보았다. 키르케고르는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구체적 상황에 부딪친 개인이 늘 불안을 느끼며 주체적 결정을 회피하면서 죽음에 이르는 병, 즉 절망에 빠지게 된다고 보았다.
- [출제의도] 목자의 평화 사상 이해하기**
그림의 사상은 목자이다. 목자는 사회 혼란의 원인이 유교의 인(仁)과 같은 차별적 사랑에 있다고 보고, 서로 사랑하고 이로우면 나누면 전쟁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전쟁이 백성이나 국가뿐만 아니라 천하에도 이롭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 [출제의도] 석가모니와 원효의 사상 이해하기**
갑은 석가모니, 을은 원효이다. 석가모니는 무명(無明)으로 말미암아 업(業)을 짓고, 이런 업으로 인해 윤회를 계속하게 된다고 보았다. 원효는 일심(一心)을 바탕으로 여러 불교 종파의 주장을 보다

높은 차원에서 하나로 화합할 수 있다는 화쟁(和諍)을 주장하였다. 또한 무명이 일심을 미혹하게 하여 마음 안에 생멸(生滅)을 일으킨다고 보았다.

- [출제의도] 주희와 왕수인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 (가)의 갑은 주희, 을은 왕수인이다. 주희는 인간의 본성은 하늘이 부여한 이치라는 성즉리(性即理)를 주장하였다. 그는 도덕적 앎[知]과 도덕적 실천[行] 사이에 선후와 경중의 구별이 있다고 보았다. 왕수인은 마음의 일[事]을 바로잡아서 본체의 바름을 회복하는 것이 격물(格物)이라고 보았다. 또한 양지가 곧 천리이며 누구나 양지를 발휘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출제의도] 이황과 이이의 사상 이해하기**
갑은 이황, 을은 이이이다. 이황은 이(理)와 기(氣)가 모두 발(發)할 수 있다는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을 주장하였다. 그는 도덕 원리인 이의 순수성과 절대성을 강조하였다. 이이는 이가 형태와 운동[爲]이 없고 기는 형태와 운동이 있다고 보았다. 그는 기를 주재하는 것은 이이고, 이의 그릇[器]이 되는 것은 기라고 주장하였다.
- [출제의도] 흄스와 로크의 사상 이해하기**
갑은 흄스, 을은 로크이다. 흄스는 인간이 원래 자유롭고 타인을 지배하기를 좋아하는 존재라고 보았다. 그는 인간이 국가 안에서 살기로 한 궁극적인 이유는 자기 보존과 이에 따른 만족한 생활에 대한 예상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하였다. 로크는 통치자가 신탁된 권력을 남용하면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하여 권력을 몰수하고 새로운 입법부를 수립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출제의도] 헤겔과 지논의 사상 이해하기**
갑은 헤겔, 을은 지논이다. 헤겔은 누구나 자신의 마음에 있는 자성(自性)을 직관하면 단박에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돈오(頓悟)를 주장하였다. 지논은 돈오 이후에도 남아 있는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 지속적인 수행[漸修]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출제의도] 케인스, 마르크스, 하이에크의 사회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 (가)의 갑은 케인스, 을은 마르크스, 병은 하이에크이다. 케인스는 수정 자본주의 입장에서 시장 경제 체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황이나 실업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르크스는 국가를 지배 계급이 피지배 계급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았다. 그는 공산 사회에서는 국가와 계급이 사라지고 생산 수단을 공유하여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하이에크는 신자유주의 입장에서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간섭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출제의도] 스피노자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은 스피노자이다. 스피노자는 이성을 온전히 사용하여 자연의 필연적 인과 질서를 인식할 때 최고의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최고의 행복은 신에 대한 인식에서 도달하게 되는 정신의 만족이다.